

李白詩에 나오는 神仙의 색

－ 李白의 七言絶句詩 〈望廬山瀑布〉의 의미 탐색과
몇 가지 視覺的 효과에 대한 검토 －

서 용 준*

〈目次〉

I. 2종류의 〈望廬山瀑布〉	1. 七絶詩 〈望廬山瀑布〉의
II. 2종류 〈望廬山瀑布〉의 간략한 비교	공간 인식과 시각적 혼돈
1. 시의 내용의 비교	2. 七絶詩 〈望廬山瀑布〉의
2. 장소와 時點의 문제	詩의 공간과 은유의 구조
III. 七絶詩 〈望廬山瀑布〉의 詩空間的	IV. 結論
구조와 문학적 활용	

I. 2종류의 〈望廬山瀑布〉

唐나라의 시인 李白(701~762)의 漢詩 중에는 같은 제목의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망여산폭포〉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2수의 한시 중에서 현재에는 七言絶句인 〈망여산폭포〉가 五言古詩인 〈망여산폭포〉보다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백시의 대표작의 하나로 뽑힐 정도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五言古詩 〈망여산폭포〉¹⁾가 이백의 살아있던 때부터 이미 人口에 膾炙되었고 당나라 때에 이미 이백의 시 모음집에 실렸지만, 七言絶句 〈망여산폭포〉²⁾는 宋나라에 들어서야 이백의 작품집에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이하 〈五古望瀑布〉 또는 〈오고망폭포〉로 약칭하겠음.

실렸다. 그 이유 때문인지 <칠절망폭포>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문의 양에도 불구하고 시의 내용에 異文이 있는 편이다. 이 2편의 시가 정확히³⁾ 언제 지어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나 시의 내용을 보면 <오고망폭포>를 먼저 짓고 이것을 참고하거나 수정하여 더 짧은 <칠절망폭포>를 지은 것으로 대부분 생각한다.

<望廬山瀑布二首> 其一⁴⁾

西登香爐峰,	서쪽으로 향로봉을 올라서
南見瀑布水.	남쪽으로 폭포수를 보았네.
掛流三百丈,	물길 매단 것이 삼백 장이고
噴壑數十里.	골짜기로 내뿜는 것이 수십 리구나.
欸如飛電來,	세차기는 번개가 치는 것 같고
隱若白虹起.	어른거리기는 흰 달무리가 일어난 듯하네.
初驚河漢落,	처음에는 은하수가 떨어졌다 놀랐는데
半灑雲天裏.	절반을 구름 덮인 하늘 속에 뿌렸네.
仰觀勢轉雄,	올려다보니 기세가 더욱 웅장해져서
壯哉造化功.	대단하구나, 조물주의 공이여.
海風吹不斷,	바닷바람이 불어도 끊기지 않았는데
江月照還空.	강의 달이 비추니 도리어 사라지는구나.
空中亂灑射,	공중에서 어지럽게 뿜쳐 쏟아져서
左右洗青壁.	좌우로 푸른 벼랑을 씻는다.
飛珠散輕霞,	날리는 구슬은 옅은 노을로 흩어지고
流沫沸穹石.	흐르는 거품은 커다란 바위에 부딪는다.
而我樂名山,	그런데 나는 명산을 좋아해서
對之心益閑.	저들을 대하니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네.
無論漱瓊液,	경장옥액에 입을 부시는 것은 물론이고

2) 이하 <七絕望瀑布> 또는 <칠절망폭포>로 약칭하겠음.

3) 현재 대체로 開元13년(725년) 즈음에 이백이 처음 湖北 지역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이 시에도 글자가 다른 곳들이 있고 해석이 애매한 곳들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관심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且得洗塵顏 또한 먼지 묻은 얼굴도 씻을 수 있다네.
 且諧宿所好, 게다가 오래도록 좋아했던 삶과도 어울리니
 永願辭人間. 오래도록 인간 세상 떠나길 원했다네.

〈望廬山瀑布〉其二⁵⁾

日照香爐生紫煙,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색 연기가 피어나고
 遙看瀑布掛前川, 멀리 폭포를 보니 앞쪽 시내를 걸었구나.
 飛流直下三千尺, 날아 흘러 곧장 삼천 척을 떨어지니
 疑是銀河落九天.⁶⁾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졌다 의심하였네.

이 2편의 시는 연구자나 독자가 어떠한 시각으로 시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각 시(특히 <칠절망폭포>)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오고망폭포>와 <칠절망폭포>를 서로 다른 풍격(분위기, 스타일 등)의 시들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자가 보기에는 <오고망폭포>가 나오고 거의 동시에, 또는 나중에 <칠절망폭포>가 나왔으며 이에 따라 <칠절망폭포>의 내용이 이미 <오고망폭포>에 모두 나왔던 것 같지만, 이 2편의 시가 서로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같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5) 이 시의 異文 가운데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李白望廬山瀑布其二異文問題思考〉(孫桂平, 《集美大學學報》第13卷 第2期, 2010, 50-56쪽)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 시의 제목이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체로 비슷해서, 제목이 ‘望(바라보다)’이 없는 것이 있고 廬山 뒤에 香爐(峰, 또는 山)이 있는 것이 있다.

제1, 2구가 “廬山上與星斗連, 日照香爐生紫煙(여산은 위로 북두성과 이어지고,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색 연기가 피어나네)”로 된 곳이 있다.

제1구의 ‘日照’가 ‘日暮(해가 저물어)’로 된 곳이 있다.

제2구의 ‘前川’이 ‘長川(긴 내)’로 된 곳이 있다.

제3구의 ‘三千尺’이 ‘三千丈(삼천 장)’으로 된 곳이 있다.

제4구의 ‘九天’이 ‘半天(하늘 가운데)’로 된 곳이 있다.

6) 보통 ‘구천에서 떨어지다’로 해석하지만 ‘구천으로 떨어지다’로 보는 해석도 있다.

II. 2종류 〈望廬山瀑布〉의 간략한 비교

1. 시의 내용의 비교

〈오고망폭포〉와 〈칠절망폭포〉는 그 길이가 차이 나는 것만큼 시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오고망폭포〉에는 시의 화자 이백의 은거와 登仙에 대한 바람이 분명하게 담겨있다. 또한 〈오고망폭포〉에는 여산의 폭포에 대한 다양한 묘사와 가치 부여가 들어있다. 모두 〈칠절망폭포〉에는 없는 내용이다. 두 시 모두 같은 제목을 쓰면서, ‘바라보다望’라는 시의 화자의 행동이 이 시가 독자에게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을 제목에서 알려주는 것은 같다. 그러나 화자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독자에게 다시 알려주는 폭포의 세부 사항(디테일)에서 두 시가 차이가 나며, 이 세부적 의미의 차이가 결국 전체 시의 주제에도 차이를 만들어 냈다.

〈오고망폭포〉는 그 押韻의 운용⁷⁾에 따라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8구는 여산에 가서 향로봉을 오르다가 멀리서 폭포를 본 내용이다. 제 9~12구는 비교적 가까이 가서 폭포를 올려다보고 그 기세와 신비한 모습에 감탄하는 내용이다. 제13~16구는 더욱 가까이에서 폭포의 물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였다. 제17~22구는 이 폭포의 통쾌하고도 신비한 모습이 이백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는지 노래하고 이백 자신의 속세를 떠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⁸⁾

이에 반해 〈칠절망폭포〉는 길이가 짧은 만큼 내용도 비교적 간단하고

7) 제1~8구(水, 里, 起, 裏), 제9~12구(雄, 功, 空), 제13~16구(壁, 石), 제17~22구(山, 閑, 顏, 間)인데, ‘壁, 石’은 入聲通韻으로 보인다.

8) 이 시를 이백의 초기 작품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백과 동시대에 살았던 林華의 〈雜言寄李白〉이라는 문장(이백에게 한 번 만나자고 보낸 편지글이다)에 임화가 〈오고망폭포〉의 구절을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이백이 장안에 입조한 것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고망폭포〉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젊은 사람이 쓴 시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도 있다.

분명해 보인다. 제1, 2구는 여산에 와서 폭포를 보았다는 내용이다. 제3, 4구는 그 폭포가 엄청나게 거대해서 놀라고 감탄했다는 내용이다. 폭포의 광경에 대해서는 제1, 2구를 원경으로 제3, 4구를 근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시의 화자 이백은, 적어도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확실히 폭포의 거대함에 놀라고 있다.

〈칠절망폭포〉가 〈오고망폭포〉에서 나왔을 것⁹⁾이라고 대부분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칠절망폭포〉의 소재와 표현 내용이 대부분 〈오고망폭포〉에도 있기 때문이다. 〈오고망폭포〉의 제3, 4구의 “掛流三百丈, 噴壑數十里.”에서 ‘直下三千尺’과 ‘掛前川’이 나왔고, 제7, 8구의 “初驚河漢落, 半灑雲天裏.”에서 ‘疑是銀河落九天’이 나왔다. 해석에 따라서는 제6구의 ‘隱若白虹起’와 제15구의 ‘飛珠散輕霞’에서 ‘日照香爐生紫煙’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칠절망폭포〉에서 보이는 의미 있는 표현에서 〈오고망폭포〉에 없는 것은 ‘直下’의 ‘直’과 ‘前川’의 ‘前’, ‘落九天’의 ‘九天’ 그리고 ‘生紫煙’인데, 이 가운데에서 역대로 異文의 여지가 없는 것은 ‘直’ 뿐이다.

그런데 사실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백시에서 활용한 표현들은 대부분 그 이전 廬山 관련 한시나 폭포 관련 한시에서 많이 쓰인 것들과 유사하다. 그러니 〈오고망폭포〉도 이미 예전 한시(또는 이백 자신의 한시)를 참고했고 〈칠절망폭포〉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도 있다. 〈오고망폭포〉는 여산의 폭포를 보고 화자의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시이고, 〈칠절망폭포〉는 여산의 폭포를 보고 그 거대함에 대한 감탄을 생생하게 써낸 시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소와 時點의 문제

시의 장소와 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두 시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9) 현재 통행하는 해석대로라면 〈칠절망폭포〉는 〈오고망폭포〉의 제8구까지 또는 제10구까지를 다시 썼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된다. 장소와 시간이 같다면, 두 시가 같은 내용이거나 선후의 관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 장소의 문제

기록에 따르면 여산에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향로봉이 있었다고 한다.¹⁰⁾ 그중 현재까지도 향로봉으로 유명한 것은 여산의 남쪽에 있는 향로봉이다. 그 외에도 여산의 동북쪽, 서북쪽에도 향로봉이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기록에는 북쪽에 있는 향로봉도 나오는데 이것은 서북쪽의 향로봉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역대로 중국 사람들은 여산에서 어느 향로봉의 폭포가 볼 만한지 몸소 찾아다녔고 현대의 연구자들도 여기에 대해 몸소 알아보려고 다녔다. 그러나 여전히 확실히 어느 향로봉이 이백이 노래한 향로봉이고 폭포인지 단언하는 것은 힘든 것 같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백의 <칠절망폭포>의 시구를 사용해서 秀峰의 향로봉(남쪽 향로봉)의 폭포(開先瀑布: 동쪽의 馬尾瀑과 서쪽의 香爐瀑이 합쳐진 것이다. 향로폭은 鶴鳴峰과 향로봉 사이의 골짜기에서 흐른다.)를 <칠절망폭포>의 폭포라고 설명하고 있고 《中國山水文化大觀》과 같은 책에서도 같은 식으로 설명한다.¹¹⁾ 이러한 설명도 결국 추측일 뿐이지만 그래도 近似해 보이긴 한다.

<오고망폭포>에서 이백이 바라본 여산의 폭포¹²⁾는 향로봉의 폭포일 수

10) 李文初, <李白詠廬山瀑布詩與香爐峰>(《語文月刊》 6期, 1999, 32-33쪽)과 慧繪, <關於“日照香爐生紫煙”>(《文史雜誌》 第4期, 2007, 40-41쪽) 참조.

11) 段寶林, 江溶 主編, 《中國山水文化大觀》, 北京大學出版社, 1996, 423쪽. 현재 이곳에 이백의 <망여산폭포>를 새겨져 있고 관광명소가 되었다.

12) 사실 이백은 지명과 같이 사용하면 항상 여산의 폭포라고 했다. <廬山謠寄盧侍御虛舟>에 香爐瀑布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을 바로 향로폭포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 시어사 노허주에게 보내는 시에서 만년의 이백은 여산에 대해 노래하면서, “金闕前開二峰長, 銀河倒掛三石梁. 香爐瀑布遙相望, 迴崖沓嶂凌蒼蒼.(금궐 앞에 두 봉우리가 높게 펼쳐졌고, 은하수는 거꾸로 삼석량에 걸렸네. 향로봉과 폭포가 멀리서 서로 바라보고, 애도는 절벽과 겹친 봉우리가 푸른 하늘로 솟았네.)”라고 하였다. 보통 삼석량을 三疊泉 폭포라고 많이 풀이하지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1, 2구에서 시의 화자는 “西登香爐峰, 南見瀑布水.”라고 말했다. 이 구절의 해석을 간단하게 한다면, “서쪽으로 향로봉을 올랐는데 남쪽으로 폭포수가 보였네(보였네)” 정도가 된다. 시에서 방위를 사용해서 공간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는 보통 그만큼으로 시의 공간이 넓기 마련이다. 앞에서 말한 수봉의 개선폭포가 있는 향로봉은 여산의 남쪽에 있다. 그러니 서쪽에 있는 향로봉이 아니다. 폭포수는 향로봉의 남쪽(향로봉에 속한 부분)에 있는 폭포일 수 있지만,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다른 골짜기의 폭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여전히 “서쪽으로 여산의 서쪽에 있는 향로봉에 올라...”로 해석하거나 “어느 쪽 향로봉이든 아무튼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향해서 향로봉에 올라...”, 또는 “봉우리의 서쪽 면으로 향로봉에 올라...”로 해석한다. 서쪽을 향해 봉우리에 오르거나 봉우리의 서쪽 노선으로 향로봉에 오른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만 이 향로봉은 개선폭포가 있는 남쪽 향로봉일 수 있다.

〈칠절망폭포〉에서도 역시 폭포가 향로봉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멀리 보이는 폭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의 다른 제목에 ‘여산 향로봉의 폭포를 보며’가 있지만, 이 제목은 나중에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시의 제1, 2구는 향로봉과 폭포 모두를 멀리서 바라본 내용이지만 이 2구절 안에 화자의 장소 이동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오고망폭포〉에서는 동쪽과 남쪽의 방향성이 있었지만, 이 시에는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통은 〈칠절망폭포〉의 향로봉도 여산의 남쪽 향로봉의 개선폭포로 많이 설명한다. 그러나 〈칠절망폭포〉의 향로봉과 〈오고망폭포〉의 향로봉이 같은 향로봉인지도 역시 확실하지 않다. 〈오

만 역시 정확한 근거는 없다. 또한 이 부분에서 “은하수가 삼겹천 폭포에 걸려서 향로폭포와 멀리 서로 바라보고...”식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2구씩 해석하다가 이 부분에서만 다음 구로 해석이 넘어가는 것은 뜬금없다. 그러나 설령 “삼석량 폭포가 향로봉 폭포와 서로 바라보고”가 맞는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향로봉 폭포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망폭포)의 일부를 다시 쓴 것이 <칠절망폭포>라고 하더라도 이미 두 시가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에 따라 “모두 개선폭포다.”, “<오고망폭포>나 <칠절망폭포>의 하나만 개선폭포다.”, “모두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¹³⁾

장소와 관련된 시의 공간적인 문제를 검토했다면 이 시들에서 화자가 폭포를 어디에서 봤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오고망폭포>의 경우에는 폭포와 화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었다가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판별할 수 있다.¹⁴⁾ 이와 달리 <칠절망폭포>는 제1, 2구와 제3, 4구 사이에 거리가 달라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통은 제1, 2구는 원경, 제3, 4구는 근경으로 많이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3, 4구의 폭포와 화자 사이의 거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은 제3, 4구에 사용된 폭포의 이미지가 사실 <오고망폭포>에서는 화자와 폭포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 때 사용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오고망폭포>에서는 폭포의 물이 삼백 장이나 떨어지는 것과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하던 것이 모두 화자가 멀리서 폭포를 본 모습이었다. 2편의 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오고망폭포>의 ‘구름 덮인 하늘雲天’과 <칠절망폭포>의 ‘아주 높은 하늘九天’ 정도가 있지만, 은하수가 떨어져 구름 덮인 하늘로 반쯤 흩뿌려지는 것과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진 것 사이에 실질적인 내용과 거리의 차이는 없다.

시의 화자와 시의 대상 사이의 거리를 판단할 때는 시 안에 객관적인 거리가 나와 있더라도 화자의 심리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에서 이것을 판단하려면 시에 어떤 표지가 있는지 찾게 마련인데, 보통은 화자의 감정이 담긴 수식이나 서술을 근거로 삼는다. <칠절망폭포>의 제4구에 쓰인 ‘의심하다疑’는 화자가 폭포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고망폭포>에도

13)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같은 폭포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14) <오고망폭포>의 경우, 제7구에서 ‘처음에는初’이라고 했다가 제9구에서 ‘더욱轉’이라고 말하면서 ‘상황(여기에서는 거리와 감정 모두)’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심리적인 표지인 ‘놀랐다驚’가 있다.¹⁵⁾ 그러므로 결국 시의 화자 이백에게는 <오고망폭포>와 <칠절망폭포>의 폭포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가 모두 가깝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칠절망폭포>의 제3, 4구에서 폭포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인지 먼 거리인지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칠절망폭포>에서 이백은 객관적인 거리와 무관하게 폭포의 거대함을 감정적으로 절감했고 이것을 실감이 나게 시로 써내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독자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시를 읽으며 거대한 폭포가 멀리 있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거대한 폭포가 바로 눈앞에 머리 위로 있다고 느낄 것이다.

2) 시의 時點의 문제

<오고망폭포>와 <칠절망폭포>는 2편의 시 모두 화자 이백이 폭포를 보고 노래하는 時點이 분명하지 않다. 2편의 시는 밤에 가까운 어둡거나 축축한 느낌의 단어를 시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에서 보는 폭포를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느낌의 배경 이미지들이 반드시 객관적인 시점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번개飛電’, ‘은하수銀漢’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었지만, 이들은 한시에서 작시 시간과 상관없이 많이 쓰는 용어이다. 다만 <오고망폭포>는 제12구에서 ‘강의 달江月이 비추니 폭포의 물줄기가 투명해진다’라는 확실히 구체적인 형상을 시에 그려냈다. 시의 흐름에서 이 구절을 상상에 바탕을 둔 일상적인 묘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오고망폭포>에서 폭포를 본 시간은 밤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렇다면 제6구의 ‘흰 무리白虹(보통 햇무리나 달무리를 의미한다.)’를 ‘달무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¹⁶⁾ 그리고 제15구의 ‘열은 노을輕霞’은 ‘달무지개’¹⁷⁾를 의미한다. <오고망폭포>의 시간에 대해 다시 말하자

15) 여기에 더해 제10구의 ‘대단하구나壯哉’ 또한 화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

16) 반면에 햇무리로 해석하고 제6구까지는 아직 해가 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7) 달무지개는 무지개를 보는 것보다 매우 힘들며, 비교적 보름달에 가까운 밤에 주로 폭포 주위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빅토리아 폭포가 달무지개의 명소라고 한다.(인터넷 위키디피아 참조)

면, 시의 전반부 일부는 해가 지기 전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지만 제7구에서 제10구 사이에 화자의 공간이동과 함께 시간이 변하여 제11구부터는 분명한 밤이다.

〈칠절망폭포〉의 시점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은 낮이라고 생각한다. 제1구에서 해가 향로봉에 비춘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미 거론한 것처럼 ‘은하수’는 폭포를 나타내는 상투어로 낮과 밤에 상관없이 많이 사용한다. 다만 ‘아주 높은 하늘九天’은 ‘구천현녀九天玄女’와 ‘천지현황天地玄黃’으로 쓰이는 것처럼 어두운 느낌이 강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높다’는 의미이지 ‘어둡다’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異文에 따라 ‘하늘 가운데半天’와 혼용되고 있는 것도 밤과 큰 상관이 없다.

〈칠절망폭포〉가 〈오절망폭포〉를 참고한 시라고 생각한다면, 〈칠절망폭포〉 또한 시간이 변해서 전반부는 해가 지기 전이고 후반부는 해가 진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 내용에 시간이 달라졌다는 명백한 표지가 없고,¹⁸⁾ 古詩이면서 편폭이 긴 〈오고망폭포〉와 달리 4구에 불과한 〈칠절망폭포〉의 안에서 그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는 〈칠절망폭포〉의 제1구의 표현도 영향을 끼쳤는데, 표면적으로 〈오절망폭포〉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미지가기도 하다.

사실 ‘자색 연기紫煙’는 이백시 이전에도 문학 자료에 다수 나왔던 표현이다. 어떤 경우에는 신선이 살거나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상서로운 구름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꽃이나 아지랑이)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표현이었다. 그런데 〈칠절망폭포〉에서 ‘해가 비추는日照’ 향로봉에 ‘자색 연기紫煙’가 피어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 과거나 현재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침에 해가 떠서 향로봉에 자욱했던 안개 속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향로봉 폭포의 물안개에 햇빛이

18) 앞에서 논했듯이, 은하수와 구천이 분명히 밤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추어져 생긴 무지개'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그저 구름인데 신선 사상을 숭상하고 낭만적인 성격을 지닌 이백이 환상적으로 꾸며서 '자색 구름'이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또는 '봉우리에 자욱했던 안개나 구름이 걷히면서 햇빛이 비치는 광경'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자색 연기는 사실 萬紫千紅의 꽃들이라는 해석도 본 적이 있다. 아무튼 이 제1구에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향로봉에서 향로를 연상한 것이며, '자색 연기'의 어떤 모호한 정체성보다는 그것이 향로봉에서 '피어난다生'는 것이다. 그래서 향로봉에서 '자색 연기'가 '피어나는' 역동성이 이 시에 활력을 준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결국 '해가 비추기' 때문에 제1구는 시점이 낮이며 4구 내내 낮의 풍경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구절의 異文 가운데에 '해가 비추는'이 아니라 '해가 저무는日暮'이라는 곳도 있었고, '자색으로 물든 연기나 구름'을 생각한다면¹⁹⁾ 이 '자색 연기'는 저물녘의 모습이라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²⁰⁾ 이것은 <오고망폭포>에서 '서쪽 방향으로(또는 서쪽 노선으로) 향로봉을 오르니'라고 한 것과는 내용이 어울린다. '서쪽(또는 서쪽 면)으로 보이는 향로봉에 석양이 비치서 붉게 물든 구름이 피어오르는' 풍경도 충분히 장관인데, 이 경우에는 굳이 '日暮'가 아니라 '해가 비추는日照'이라는 표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이 <칠절망폭포>의 시점을 <오고망폭포>와 동일하게 만든다.

19) 해가 막 뜰 때의 동쪽 하늘은 분명 붉은색이지만, 보통 과학적 이미지에서 하늘의 빛은 새벽에 푸르고 저녁에 붉다.

20) 이백시 <秋浦歌17首> 其14는 郭沫若의 해석(제련소 노동자의 밤샘 노동과 노동요) 이후로 이백의 현실주의 시관을 대표하는 시의 하나가 되었다. 광말약의 영향은 대단해서 현재 거의 모든 연구자가 그의 해설을 따르고 한국에도 이를 따르는 논문이 나오기도 하였다. 다만 본 연구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통적인 해석(연단과 鍊丹歌)을 선호한다.

爐火照天地,	연단 화로의 불꽃이 하늘과 땅을 비추고
紅星亂紫煙.	붉은 별(불꽃이거나 화성이거나)이 자색 연기 속에 어지럽다.
赧郎明月夜,	오오, 밝은 달밤에
歌曲動寒川.	노래 소리가 찬 강가에 퍼지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더는 없으니 결국 독자들의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 〈칠절망폭포〉가 이미 독립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해석은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Ⅲ. 七絶詩 〈望廬山瀑布〉의 詩空間의 구조와 文學적 활용

이상 〈칠절망폭포〉를 〈오고망폭포〉와 계속 비교한 이유는 주로 〈칠절망폭포〉가 〈오고망폭포〉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고망폭포〉의 시적인 내용구조와 화자의 공간적 거리 이동이 〈칠절망폭포〉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목에서 ‘바라보다’라고 한 것처럼 화자가 시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등장해서(오르고登, 보고見, 놀라고驚, 우러르고仰, 조망하고觀, 감탄하고壯, 좋아하고樂, 마주하고對, 양치질하고漱, 씻고洗, 바라고願, 떠난다辭) 거듭 다채로운 표현으로 여산의 폭포를 묘사하고 그 묘사 속에서 화자의 폭포에 대한 감정을 노출 시켜서 결국 마지막에 화자의 은거에의 열망을 분명하게 표현한 〈오고망폭포〉와 달리 〈칠절망폭포〉에는 오직 여산 폭포의 놀라운 거대함에 대한 역시 비범하게 놀라운(그 이전의 다른 사람의 시문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고 이백의 〈오고망폭포〉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 재료를 잘 조정하여 〈오고망폭포〉보다 더 세련되면서도 이백 스타일의 거침 없는 표현으로 만든) 시인의 감탄과 의혹이 제4구에 나올 뿐이다. 독자적인 시 작품으로 〈칠절망폭포〉는 (어쩌면 〈오고망폭포〉의 내용을 제10구 ‘조물주의 작품은 대단하구나’까지만 모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여산의 폭포를 가장 멋있고 강렬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손에 꼽히며, 그중 대표적으로 宋나라의 蘇軾이 여산을 읊은 최고의 작품으로 이 〈칠절망폭포〉를 칭송하였다.²¹⁾ 산과 폭포를 사랑하는 독자에게 이 시는 날아 흘러 삼천 척을 곧장 내리꽂는 폭포의 모습과 함께 그

21) 詹鉞,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百花文藝出版社, 1996, 3029쪽 참조.

자체로 매우 충분하고 시적인 감동이 넘쳐나는 작품이다. 산의 아름다움과 폭포의 거대함을 이토록 잘 노래했으니, 이미 이 시는 세상의 진리이며 인생의 진리를 포함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런데 제3, 4구의 놀라운 표현과 폭포의 진리를 위해 제1, 2구를 단지 아름답지만 모호한 배경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은 비록 짧은 4개 구절의 시이지만 시인 이백의 시적 화자로서의 모습이, 즉 화자의 시적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과거와 현재의 대부분의 해석처럼, <칠절망폭포>는 시의 내용 전개에 맞게 제1구는 큰 장소 배경인 향로봉, 제2구는 먼 거리의 대상인 폭포, 제3, 4구는 폭포의 거대함에 대한 강렬한 표현과 시인의 감탄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의 균형을 고려해 보면, 이 시에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1. 七絶詩 <望廬山瀑布>의 공간 인식과 시각적 혼돈

보통 <칠절망폭포>의 표현 수법은 제3구의 과장과 제4구의 직유(비유)가 유명하다. 하지만 사실 이 시는 전체 구절이 모두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또는 산 비유와 죽은 비유로 나뉘는 여부)는 우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관념	보조관념	수사기교	虛景과 實景
日照香爐生紫煙	향로봉의 구름, 안개, 노을 등	향로, 자색 연기.	은유, 대유(환유), 과장	허경
遙看瀑布掛前川	폭포의 물줄기	앞쪽 시내, 걸다	대유(환유), 의인(활유)	실경
飛流直下三千尺	매우 큰 폭포	삼천 척, 날아 흐르다	과장, 활유	실경
疑是銀河落九天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	은하수, 구천, 생각하다	직유, 은유, 과장	허경

시인은 현실의 객관적인 대상(사실)을 지각하여 그것을 시 속의 대상으로 만들어 독자가 지각을 하도록 만든다. 시인은 현실의 대상을 그가 아는(인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각하며 그가 표현할 수 있는 限度(그의 예술적 사고를 포함한다) 내에서 시 속의 대상으로 만든다. 만약 우리가 보는 시 속의 대상물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과장되었거나 변형되었다면 그것은 시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현실의 사실을 파악했거나 또는 온전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사고하여 그러한 말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칠절망폭포〉의 경우에 시의 화자 이백은 여산의 폭포를 보면서 처음부터 그의 정신적 기괴함 때문에 다소 이상하게 세상을 인지하였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말로 표현하면서 역시 그의 정신적 기괴함이나 언어적 습관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표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이백의 눈에는 향로봉의 붉은 노을이 자색 연기로 보였을 수도 있고, 또는 시로 말하면서 그의 언어로는 향로봉의 붉은 노을을 자색 연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한시에서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자기 말로 표현했던 實例들을 고려하면, 이백시의 화자는 현실의 대상을 인지할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다르게 세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이백은 애당초 제정신이 아닌 사람(분명히 당나라 때도 이미 진부한 표현이었지만 이백 본인은 자랑스러워했던 하늘에서 쫓겨난 신선, 즉 謫仙)이었고, 그가 하는 말만 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보는 눈도 괴상한 사람이었다.

지나치게 詩文學 쪽으로 경도된²²⁾ 환상적인 해석이어서 이만큼 극단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더라도, 시인이 자신의 문화적이고 지적인 인식 수준에서 현실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22) 중국의 전통 문인은 기본적으로 문학가라기보다는 지성인이었고 이것은 시인도 마찬가지였다. 간혹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 경향을 보이는 시인들이 있었는데, 이백도 (뭔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지적으로 모자라는 듯한) 이 부류에 속하는 경향이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정이다. 시인 이백은 현실의 여산 폭포를 보고 자신이 아는(언어적으로 영향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 폭포를 파악하고 자신이 아는 말로 다시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그 결과 그가 만들어 낸 <칠절망폭포> 속의 여산과 그 부속물들은,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實景이든 虛景이든 또는 虛實交融이든, <칠절망폭포>의 문학적 공간에만 존재하는 비현실의 세상을 만들었다. 독자는 이 시 속의 세상의 대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기본 지식에서 익숙한 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낯선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칠절망폭포>의 전체 내용이 모두 이백의 수사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단지 결정적으로 제3, 4구의 거대한 폭포에 대한 거침 없고 멋진 감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다.

2. 七絶詩 <望廬山瀑布>의 詩的 공간과 은유의 구조

필자는 일찍이 이백의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시에 대한 논문²³⁾을 발표하면서 특정한(비교적 길이가 짧거나 시의 표현이 환상적이거나 또는 다른 상황의) 종류의 이백시에서는 시의 비유적 표현을 시 전체의 표현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말하려는 바를 판단해야 한다(이백의 이상한 말을 이상한 말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이 <황학루>시에서 “오랜 친구가 서쪽으로 황학루를 이별하고 좋은 봄날에 양주로 내려가네. 외로운 돛 먼 그림자가 푸른 하늘에서 사라지고 오직 장강이 하늘가로 흐르는 것만 보이네.”라고 이백이 노래한 것을 구절구절마다 본래 하려는 말을 찾아서 시를 설명하지 말고, 시 전체로 화자의 말을 이해해서 화자와 시인이 말하려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필자는 이 시에서 맹호연이 탄 배는 시의 화자의 말에 따르

23) 서용준, <李白詩‘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연구-시의 해석과 상상력의 문제>, 《중국어문학지》 66집, 중국어문학회, 2019.

면 하늘을 날아 양주로 떠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이 <칠절망폭포>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한시 해석에서 하듯이 구절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따로 나누지 말고 전체 이야기를 보고 다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도표를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과 비교한 것을 정리하였다.

원시	구절마다 내용 풀이	전체를 같이 해석
日照香爐生紫煙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색 연기(수증기, 구름, 안개, 무지개 등)가 피어나고	해가 비치는 향로에서 자색 연기가 피어나고(연단이나 주술)
遙看瀑布掛前川	멀리 폭포를 보니 앞쪽 시내를 걸었구나	멀리 폭포를 보니 앞쪽 시내를 걸었구나
飛流直下三千尺	날아 흘러 곧장 삼천 척을 떨어지니	날아 흘러 곧장 삼천 척을 떨어지니
疑是銀河落九天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졌나 의심하였네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졌나 의심하였네

일견 두 해석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시의 화자의 말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자는 것은 시의 화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이 <칠절망폭포>에서는 두드러지게, 그리고 오직 제1구만 해석이 달라진다. 누구나 제1구의 향로가 향로봉인지 알고²⁴⁾ 자색 연기가 어떤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아무튼 <칠절망폭포>에서 이백은 표면적으로 오직 ‘향로²⁵⁾에서 자색 연기가 난다’라고만 말하였다.

24) 앞에서 거론한 <廬山謠寄盧侍御虛舟>에도 ‘香爐瀑布’라고 하였으니 역시 향로봉이 아니고 향로나고 물을 수 있지만 <칠절망폭포>와는 시의 성격에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25) 향로봉의 이름 자체가 향로처럼 생긴 봉우리라는 뜻이고 이것은 매우 흔히 쓰이는 비유이기 때문에 여산에도 향로봉이 여럿 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여러 산에서도 향로봉은 매우 흔한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통 번역서나 주석서는 <칠절망폭포>을 설명하면서 이백이 향로봉의 이름에서 향로를 가져와 자색 연기가 난다고 말한 것(일종의 언어유희)이라고 해설한다. 그러나 이 시

자색²⁶⁾은 보통 보라색을 의미하지만, 이 보라색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라마다 사람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²⁷⁾ 보통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혼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에서 purple²⁸⁾이고, violet²⁹⁾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파장의 보라색이라고 한다. 한자로 ‘紫’는 《說文解字》에서 설명하길 此 발음에 糸의 뜻으로 된 형성자로 보라색 실이나 천을 뜻한다고 보았는데 그 외의 연구자에 따라 권력자의 복식으로 보기도 한다. 복잡하고 비슷한 색이 많은 보라색에 대해 고대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³⁰⁾ 이백시에도 ‘紫’자가 여러 곳에서 나온다.³¹⁾ 그리고 〈칠절망폭포〉에서 피어오르는 자색

에서 향로의 시적 작용이 단지 그것만은 아닐 수 있다.

26) 자색에 관한 여러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주로 〈보라색의 유래 및 이미지의 고찰〉(김은경·김영인, 《디자인학연구》 16권 16호, 1996, 225-234쪽)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김은경은 이 논문에서 보라색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긍정적인 이미지 : 고귀함, 권위, 신앙심을 상징 / 신비하고 瑞祥的인 색 / 관능적, 여성적인 색 / 수면, 진정의 효과가 있는 색 / 순수함, 낭만적인, 향기로운 색.
2. 부정적인 이미지 : 미성숙함, 우유부단함, 의기소침한 정서와 관련된 색 / 죽음(왕가의 상복)과 관련된 색. / 타락한 힘의 상징인 색 / 미신, 죄인의 회개를 나타내는 색.

27) 가령 《說文解字》에서 許慎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천에 물들인 것이 자색(청색과 적색의 間色)이라고 했는데 段玉裁는 허신이 말한 청색이 흑색의 사투리이며 자색은 빨간색과 흑색의 간색이라고 주장하였다.

28) 가령 똑같이 purple이라고 하더라도 독일인은 자주색 쪽을 생각하고 영국인이거나 미국인은 자주정의 색을 생각한다고 한다. 에바 헬러(이영희 역), 《색의 유희》 2, 예담출판사, 2002, 99쪽 참조.

29) violet은 무지개의 색이다. 빨주노초파남보의 ‘보’에 해당한다. 김은경, 앞의 논문, 228쪽 참조.

30) 李建文은 중국 고시에 나오는 ‘紫’를 4종류로 분류하였는데 “1. 고귀한 服色, 2. 고귀한 器物, 3. 고귀함과 상서로움의 비유, 4. 고상함, 상서로움, 부귀함, 화평함의 상징”으로 나누었다. 결국 고귀하다는 뜻이다.(李建文, 〈紫說〉, 《文史雜誌》 1期, 2011, 31-32쪽 참조)

31) 裴露璟은 〈李白詩中的紫〉(《巢湖學院學報》 121期, 巢湖學院, 2013, 80-84쪽.)에서 104수의 이백시에 총 113번 紫자가 쓰였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 따

연기가 신선 세계에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³²⁾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자색 연기의 詩空間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충 자료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칠절망폭포>의 異文이다. 즉 “여산은 위로 북두성과 이어지고,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색 연기가 피어나네(廬山上與星斗連, 日照香爐生紫煙)”이다. 이 2구절은 필자가 보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첫째, <칠절망폭포>가 ‘煙’, ‘川’, ‘天’의 압운을 가지니 이 異文도 ‘煙’, ‘天’으로 압운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의 平仄이 엉망이 되어 絶句가 아닌 古詩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백은 이런 문제를 크게 꺼리는 사람이 아니므로 평측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둘째, 제목에 아무튼 瀑布가 들어가고 이 시가 폭포를 노래하는 시인데 이 폭포가 겨우 3구에서야 나오는 것은 시의 내용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 이유 역시 嗜好的인 측면이 강해서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폭포를 낮에 보고 있는데 제1구의 여산 이야기가 밤의 별을 거론하니 시의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이것은 정작 낮에 폭포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에 무심했던 사람들이 비판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반대로 이 異文에는 시의 의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점도 있다. 시의 제목에 廬山の 폭포라고 말했는데도 <오고망폭포>나 <칠절망폭포>

르면 113자 가운데에서 35번은 帝王, 皇宮, 權貴 등의 儒家的의 이미지에 쓰였고, 37번은 求仙, 仙人, 道士 등의 神仙思想의 이미지에 쓰였고, 그 외에 隱逸情緒와 俠士氣概의 이미지에 쓰였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칠절망폭포>의 자색은 은일정서의 이미지로 쓰였으며 비슷한 작품으로 <留別金陵諸公>이 있다고 하였다. 발표자가 보기에 고대 중국에서 은일은 유가적인 은일과 도가적인 은일이 모두 있었는데 도가적인 은일의 경우 신선사상과 분리할 수 없는 분야이니 裴露琮의 분류에도 난점이 있어 보인다. 陳曉煜은 《“紫”의 語義分析及修辭闡釋》(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에서 《全唐詩》에 나오는 “紫”를 “求仙之情”, “隱逸之志”, “入世之思”, “豪俠之意”로 나누어 분석했다. (陳曉煜, 같은 논문, 49-54쪽 참조) 두 연구자 모두 “紫”의 동일한 의미 분류를 하였는데 모두 근거를 말하지는 않았다.

32) 左見은 <李白秋浦歌中的“紫煙”>(《史學集刊》 2期, 1987, 67쪽.)에서 “日照香爐生紫煙”을 道家的 鍊丹과 관련시켰다.

모두 여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물론 향로봉이 여산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시의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시에서의 의미가 떨어지는 것이 한시의 법칙이다. 그러니 시의 처음에 여산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그 일부인 향로봉이 나오는 것도 타당한 시의 전개 방법이다. 그렇다면 시의 처음에 나오는 여산은 이 시의 전체 내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의 소재이자 장소이며, 시의 화자가 여산을 좋아하고 여산에 들어가는 이유를 밝혀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시에서 여산의 존재 가치는 여산이 위로(또는 여산의 정상)인 星斗와 연결된다는 점에 있다. 즉 여산은 위로 북두성과 연결되는 곳이고 여산의 일부인 향로는 연단 작업이나 주술 작업의 과정으로 자색 연기를 피워서 그것을 하늘로 올린다. 그러므로 향로에서 피어나는 자색 연기는 도가적이고 신선사상적이며 주술적인 이미지를 가진다. 문학적 논평이지만, 여산의 자색 연기는 하늘에서 쫓겨난 신선이 별나라로 올라가고 싶은 희망의 상징이다. 그리고 이 여산의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하늘 끝 구천에서 떨어지는 은하수이며 여산이 위로 별나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상이다.

이백시 <留別金陵諸公>은 작성 시기에 대해 異論(이백의 만기 작품이거나 아니다)이 있지만 이백이 남경의 친구들과 작별하며 남긴 시인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 시에서 이백은 금릉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금릉에 남는 친구들에 대한 칭찬을 한 다음에 자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시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 시의 마지막 단락이다.

...

五月金陵西,	오월에 금릉의 서쪽에서
祖余白下亭.	나를 백하정에서 전송을 하네.
欲尋廬峰頂,	여산의 봉우리 정상을 찾으려 하니
先繞漢水行.	먼저 한수를 끼고 길을 가리라.
香爐紫煙滅,	향로봉에 자색 연기가 사라지고
瀑布落太清.	폭포가 태청에서 떨어지리.

若攀星辰去, 만약 별을 잡고 떠나간다면
揮手緬含情. 손을 흔들어 멀리서 그리워하리라.

마지막 부분의 대의는 여산에 은거하겠다는 말이지만 그 세부적인 표현 내용은 이백이 신선이 되어 별에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이다. 여산 가장 높은 곳을 찾아가서 향로봉과 폭포를 통해 별나라로 돌아간다는 이 내용은 공간을 안배한 시적 구조가 〈칠절망폭포〉(특히 여산이 북두성과 연결된 〈칠절망폭포〉)와 대동소이하다. 이 시로 보면 자색 연기가 사라지는 것은 저물녘 풍경일 가능성이 큰데, 자색 연기가 사라지고 단약을 완성하거나 주술 작업을 완성한 다음에 폭포수가 태청에서 떨어지면 이백은 밤하늘의 별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칠절망폭포〉의 향로에서 피어나는 자색 연기가 신선사상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 〈留別金陵諸公〉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해석에서 〈칠절망폭포〉의 제2구의 “멀리 폭포를 보니 앞쪽 시내를 걸었구나(遙看瀑布掛前川)”는 화자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폭포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실제로 몸이 이동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제1구를 ‘승천을 기원하는 향로의 자색 연기’로 보았을 때, 그리고 제1구가 ‘여산 위로 이어지는 북두성’을 대신하는 자질을 부여받으면서³³⁾, 제2구는 폭포가 하늘과 이 세상을 연결해서 내려오는 어떤 통로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 제2구에 대해서는 ‘앞쪽 시내前川’와 ‘긴 내長川’의 異文 문체가 있었고 현재에도 ‘긴 내’로 쓰는 전문 서적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긴 내’에는 비록 ‘폭포가 크다’는 제3, 4구의 잘 알려진 뜻을 돕는 의미가 있지만, 이 폭포가 별나라와 인간 세상을 연결하는(가령 이백의 〈將進酒〉의 구절인 ‘황하의 물결은 하늘 위에서 와서黃河之水天上來’와 같은) 작용은 ‘앞쪽 시내’보다 덜하다. 그래서 ‘앞쪽 시내’는 ‘앞 길’, ‘떠나는 내’, ‘길 떠나는 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1, 2구의 異文인 “여

33) “廬山上與星斗連, 日照香爐生紫煙.”의 2구절을 ‘日照香爐生紫煙’의 1구로 대신했기 때문이다.

산은 위로 북두성과 이어지고,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색 연기가 피어나네(廬山上與星斗連, 日照香爐生紫煙)보다 지금 전하는 “해가 향로봉을 비추니 자색 연기가 피어나고, 멀리 폭포를 보니 앞쪽 시내를 걸었구나(日照香爐生紫煙, 遙看瀑布掛前川)”가 시적으로 더 의미 있는 까닭은 이것이 신선 세계를 지향하는 이백시의 화자의 발언 내용과 구조적으로 더 어울리기 때문이다.

향로에서 자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승의 방향과 폭포가 앞쪽 시내로 내려오는 하강의 방향은 모두 신선 세계와 인간 세상의 소통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이 시에서는 바로 여산의 폭포이다. 그래서 제3, 4구에서 화자는 날아 흘러 내리꽂는 폭포가 삼천 척이나 떨어졌다고 말하고, 이 폭포가 사실은 보통 하늘도 아니고 최고로 높은 하늘인 九天에서 (<留別金陵諸公>에서는 도가의 최고의 하늘인 ‘太淸’에서) 떨어진 은하수라고 과장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이 여산은 이백이 은거하여 登仙할 만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백의 과장된 말에는 그 자신의 합리적인 과장의 논리가 있었다.

제3구에서 삼척 ‘尺’이 삼천 ‘丈’으로 된 곳도 있는데, <오절망폭포>에서도 폭포를 삼백 ‘丈’이라고 한 것과 비교하여 <칠절망폭포>에서도 삼천 척이 좋은 것으로 보통 풀이를 한다.³⁴⁾ 대략 1km가 안 되는 길이인데, 이미 대단한 과장이고 여산의 높이도 1.5km가 안 되니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삼천 장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九天에서 떨어지려면 삼천 척으로는 부족한 것 같기 때문이다. 여하튼 고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삼천은 확실히 매우 큰 느낌의 수이며, 같은 구절 안의 ‘곧장 내리 쏘다直下’의 ‘直’의 발음과의 諧音을 생각한다면 ‘척’이 매우 거칠고 강한 느낌이 들어 좋다.

제4구에서 ‘九天’이 ‘하늘 가운데半天’으로 된 곳도 있는데, ‘長川’을 꽤 많이 쓰는 것처럼 ‘半天’도 꽤 많이 쓴다. 이것은 ‘구천’은 지식적으로 매

34)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같은 길이인데도 삼백 장보다 삼천 척이 더 길게 느껴진다고 한다. 십 킬로미터보다 백만 밀리미터가 더 길게 느껴진다는 셈이다.

우 높아서 은하수보다도 매우 높은 정도이기 때문으로,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진다면 폭포를 보면서 화자나 독자가 머리를 위로 너무 많이 올리게 되어서 ‘반천’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半’이라는 단어가 <오고망폭포>에도 나오고 이백시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예를 들었듯이 이백은 은하수에 대한 언급 없이도 폭포가 ‘태청’에서 떨어진다는 말도 한 사람이다. 그리고 九天 정도는 되어야 이백이 별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해한 시의 공간적 비유의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해석	공간적 지향	이미지의 작용
해가 비치는 향로에서 자색 연기가 피어나고	하늘을 향한 염원	상승과 소통의 이미지
멀리 폭포를 보니 앞쪽 시내를 걸었구나	아래 세계와 연결된 통로로서의 폭포	하강과 소통의 이미지
날아 흘러 곧장 삼천 척을 떨어지니	아래로 곧장 연결된 폭포의 거대함	하강과 과장의 이미지
은하수가 구천에서 떨어졌나 생각했다네	지향점으로서의 구천과 연결통로로서의 은하수	빛과 어둠의 이미지

IV. 結論

거칠게 평하자면 이 유명한 七言絶句 <望廬山瀑布>에 대한 기존의 보편적인 이해는 이 시를 이백의 五言古詩 <망여산폭포>의 제8구(또는 제10구)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다시 잘 쓴 작품으로 만든다. 물론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히 잘 받아들여지듯이 이것만으로도 아주 멋진 시이다. 그러나 단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만 이 시를 한정하는 것은, 필자가 처음 이 시를 접하고 그동안 줄곧 떠올렸던 제1구의 환상적인 자색 연

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지나치게 무화시킨다. 이 자색 연기가 시의 내부적 세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단순히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거나 또는 단순히 시적 화자의 화려한 말솜씨를 증명하는 멋있는 표현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대부분의 이백시 관련 주석서나 번역서 등을 보면, <오고망폭포>에 비해 <칠절망폭포>는 그 전체적 감상은 있으나 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다. 소위 전체적으로 멋있으나 세부적으로 별로 할 말이 없는 시가 된다. <오고망폭포>의 제11, 12구의 ‘바닷바람이 불어도 끊기지 않았는데, 강의 달이 비추니 되려 공령해진다.(海風吹不斷, 江月照還空)’의 폭포의 강인하면서도 신령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백의 놀라운 시구에 대한 역대의 칭송, 즉 이백시의 엄청난 시 세계에 대한 칭송에 비해, <칠절망폭포>에 대한 소식의 칭찬은 그 내용이나 분량이 심정적으로 아쉽다. (간혹 <오고망폭포>에 비해 시적으로 내용 수준이 부족하다고 <칠절망폭포>를 혹평한 예도 있었다.)

그래서 시의 내적인 세계를 더 확대하고 그 의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의 해석을 진행하였다. 향로봉이자 향로에서 피어나는 자색 연기의 염원이 이백이 바라보는 여산의 폭포를 신선 세계와의 통로로 만들었고, 이백은 여산의 폭포를 구천에서 떨어지는 은하수로 여겼다. 이러한 해석은 <칠절망폭포>을 <오고망폭포>의 전체 내용(폭포의 거대함과 시인의 구천에의 희망)을 포함하면서도 거대한 여산 폭포의 강렬한 이미지를 특별하게 돌출시킨 독자적인 예술 작품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古代詩에 대한 이해에는 일정한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현대인의 시각에서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환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또는 사실과 부합하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시인에 비해 이백의 시는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독자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존의 해석(폭포의 거대함에 대한 의혹과 감탄)으로 이미 충분히 좋다고 느낄 수

도 있다. 시가 주는 감동이 주로 주관적인 독자의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칠언절구 〈망여산폭포〉나 전체 이백시의 연구와 이해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계통을 만드는 것에 일정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경·김영인, 〈보라색의 유래 및 이미지의 고찰〉, 《디자인학연구》 16권 16호, 1996.
- 서용준, 〈李白詩‘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연구-시의 해석과 상상력의 문제〉, 《중국어문학지》 66집, 2019.
- 에바 헬러(이영희 역), 《색의 유혹》 2, 예담출판사, 2002.
-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 시집》, 학고방, 2015.
- 주드 스투어트(배은경 역), 《무지개에는 왜 갈색이 없을까?》, 아트북스, 2014.
- 安旗, 《李白年譜》, 文津出版社, 1987.
-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 巴蜀書社, 2000.
- 陳曉煜, 《‘紫’的語義分析及修辭闡釋》,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 慧繪, 〈關於“日照香爐生紫煙”〉, 《文史雜誌》 第4期, 2007.
- 李建文, 〈‘紫’說〉, 《文史雜誌》 1期, 2011.
- 李文初, 〈李白詠廬山瀑布詩與香爐峰〉, 《語文月刊》 6期, 1999.
- 裴露琮, 〈李白詩中的紫〉, 《巢湖學院學報》 121期, 2013.
- 邵杰, 〈李白‘望廬山瀑布’絕句“偽作說”析論〉, 《殷都學刊》 1期, 2018.
- 孫桂平, 〈李白望廬山瀑布其二異文問題思考〉, 《集美大學學報》 第13卷 第2期, 2010.
- 孫尚勇, 〈七絕‘望廬山瀑布’是李白作品嗎?〉, 《古典文學知識》 第189期,

2016.

元 蕭士贇, 《分類補註李太白詩》, 安正書堂, 明正德15年, 1520.

清 王琦, 《李太白全集》, 華正書局, 1991.

楊玉忠, 〈秋浦歌·爐火照天地“舊解”〉, 《四川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1期, 1997.

郁賢皓, 《李白大辭典》, 廣西教育出版社, 1995.

郁賢皓, 《李太白全集校注》, 鳳凰出版社, 2015.

張孟麟, 〈三次登廬山, 跟踪覓“紫煙”〉, 《語文學習》 9期, 1990.

詹福瑞、劉崇德、葛景春 等, 《李白詩全譯》, 河北人民出版社, 1997.

詹鎡,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百花文藝出版社, 1996.

趙黎英, 〈詞裏乾坤天地寬—關於詞語“紫煙”的教學實踐與思考〉, 《江蘇教育》 小學教學版 1期, 2009.

左見, 〈李白秋浦歌中的“紫煙”〉, 《史學集刊》 2期, 1987.

< Abstract >

Li Bai's poems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are currently delivered under the same name by five-character-ancient-verse and seven-character-quatrain. Among them, the five-character-ancient-verse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was first known to the world and has been highly praised for its physical length and literary value. However, after the Song Dynasty, the seven-character-quatrain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became known to the world, and after the famous literati of Song Dynasty—Su shi(蘇軾) praised this seven-character-quatrain work, it has continued its reputation as a representative quatrain work of Li Bai until now.

Excluding the controversy over its origin, Evaluating the independent literary value of the seven-character-quatrain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now must include identifying what characteristics the poem shares with the five-character-ancient-verse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and what characteristics it possesses independently. Compared to the various colorful and significant expressions of the five-character-ancient-verse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although the seven-character-quatrain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developed the exaggeration of the expression, Its poetic world is thought to be immersed only in the enormous appearance of the waterfall at Mount Lu and overlooked for other poetic possibilities.

Contrary to the main interpretation so far,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seven-character-quatrain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summarizes the huge development of the contents structure of the five-character-ancient-verse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which seems to be the previous work. And in its content composition, the seven-character-quatrain “Viewing the Waterfall at Mount Lu” implies a typical literary form of Li Bai, which was not seen in the five-character-ancient-verse works. and this paper proved conclusively that this poetic spatial structure is being completed by the purple smoke from the incense burner of the first line, which has been neglected so far.

Key Words : 칠언절구(Seven-character-quatrain), 오언고시(Five-character-ancient-verse), 廬山(Mount Lu), 자색(Purple), 폭포(Water fall), 구선(Pursuit of Immortals), 이백(Li Bai), 과장(Exaggeration)